

“이 캔버스를 걸레질로 1시간 동안 닦아주세요.”

작가 김홍석(50)은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해 특별한 일을 맡긴다. 캔버스에는 그가 붓질한 색이 칠해져 있다. 노동자가 할 일은 그 색을 걸레질로 지우는 것이다. 작가는 노동자에게 시간당 약속된 돈을 지불하고 만족할 만한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걸레질을 계속하게 한다. 걸레질을 통해 완성된 이 작품은 누구의 작품일까.

서울 삼청로 국제갤러리 전시장에는 ‘이것도 작품인가’ 싶은 작품들로 즐비하다. 중견 작가 김홍석의 개인전 ‘blue hours’와 멕시코 출신의 다미안 오르테가(47)의 ‘Reading Landscapes’전이 각각 열리기 때문이다.



작가 김홍석의 설치작품.

일상이 예술이 되다

매일경제

14.04.14

국제갤러리(주)



자신의 작품 앞에 선 다미안 오르테가.

이 두 전시는 2인전은 아니지만 함께 음미할 만한 공통점이 적지 않다. 우선 일상적인 재료를 활용해 현대미술의 정체성을 묻는다.

아트페어에서 작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인 오르테가는 정규 미술교육을 받은 작가는 아니다. 그러나 그는 콘크리트와 벽돌, 알루미늄, 고무, 골판지, 스티로폼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미술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비(非)미술적’ 재료를 한데 모아 ‘작품’을 만들어낸다.

‘지구 중심으로의 여행, 관통할 수 있는’ 작품은 천장에 매달려 있는 구 형식인데 지구핵을 의미하는 곳은 유리 조각으로 돼 있고 겹겹층마다 버려진 테라코타와 돌멩이로 만들어졌다. 관람객이 안으로 들어가 작품 내부를 관람할 수 있도

국제갤러리, 김홍석·다미안 오르테가 전시
돌멩이·플라스틱 등 일상적인 재료로 작업

록했다. 그는 겹겹이 쌓인 돌멩이와 나무, 지층 작업을 통해 인생의 희로애락을 작품에 버무린다.

두 작가 모두 유머와 풍자가 깃든 개념적인 작업을 한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김홍석은 찌그러진 철제 캐비닛을 가지고 와 ‘걸레질 회화’와 마찬가지로 일용직을 고용해 반짝반짝 광을 내게 한다. 그리고 묻는다. 여러 사람의 노동이 집약됐지만 유명 작가 개인에게만 명성을 안겨주는 현대 미술품은 과연 정당한가. 그리고 작품의 이면에 있는 ‘이름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 오르테가 역시 일상적으로 접하는 하찮은 물질 속에 잠재해 있는 예술적 가능성과 사회적 함의를 묻는다. 두 전시 모두 5월 11일까지.

(02)735-8449

이향휘 기자